

#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7월 18일(통권47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새로운 보수의 길' 상반기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를 마치고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매주 목요일 열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의 조찬 정책세미나는 한선재단이 정책을 생산해 내는 대표적 정책 활동 중 하나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결실은 보수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보수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보수 본래의 가치를 살려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결기를 다진 장(場)이었다. 그 희망의 불씨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보수(保守)를 부단히 보수(補修)하는 초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도 결실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수는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었다. 보수가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미래담론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 보수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담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생태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등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에 따른 결과도 승복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의 조찬 정책세미나는 한선재단이 정책을 생산해 내는 대표적 정책 활동 중 하나이다. 한선재단의 조찬 정책세미나는 한선재단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해 왔다. 2006년 9월 출범할 당시부터 조찬세미나가 시작되었으니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262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니 큰 족적을 남겼다고 자부할 만하다. 한선재단은 조찬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북한의 정상화, 한반도 통일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고, 한선재단이 제시한 화두는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선재단의 조찬세미나는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공론(公論)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한선재단의 조찬세미나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선재단 식구들은 조찬세미나에 대해 자긍심도 크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목요 정책세미나의 대(大)주제는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 한 새로운 보수의 길: 진단과 대안 모색'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안보 등 분야별 세부주제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해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세미나는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가 안고 있는 폐단은 무엇인가, 그 폐단은 치유 가능한가,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기영합주의(Populism)는 배격하고 정책중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한선재단의 2017년 상반기 목요 정책세미나는 지난 7월 6일, 총 20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상반기 목요 정책세미나는 이전의 세미나와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시작된 세미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의 위협에 주눅이든 보수진영의 좌절과 방향

상실은 세미나 기간 동안 큰 압박이었고 부담이었다. 이런 압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20회의 분야별 정책세미나는 처음 기획 당시에 의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 기간 동안 무언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한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미흡했는지 평가해보는 것은 향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결실은 보수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보수에 대한 저변(底邊)의 인식은 부정과 무능, 특권과 특혜에 안주하는 기득권집단이며, 방향성도 상실한 무능한 집단이라는 사시(斜視)가 고착화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간 중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의 결과는 보수의 괴멸을 부채질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보수에 덧씌워진 주홍글씨는 보수정치의 괴멸이었지 보수(保守)의 가치가 괴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은 소득이었다. 그래서 보수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보수 본래의 가치를 살려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결기를 다진 장(場)이었다. 그 희망의 불씨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보수(保守)를 부단히 보수(補修)하는 초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도 결실이었다. 보수(保守)의 보수(補修)는 앞날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는 대목이었다. 또한 보수가 초심을 찾는 길은 강함보다 유연함이고, 남을 배려하는 여유이며,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보수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바로 보수가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반성을 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도덕재무장함으로써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담론을 주도해야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수는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었다는 점도 결실이었다. 보수가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미래담론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 보수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담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생태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사고와 관행에서 고착된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수반하며, 혁신적 변화에 적응할 생태계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은 기존의 추격모형(Fast Follower Model)을 선도모형(First Mover Model)으로 변환시키는 동인이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혁신생태계의 환경조성은 보수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관치혁신, 교육 및 노동개혁, 복지제도의 개혁과 문화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직된 수직적 조직문화를 유연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문화로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미래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보수의 개혁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수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견지한다면 미래담론을 주도하고 개혁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주었다는 점은 성과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등임을 분명히 했다. 평등에 매몰된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며, 자유와 공정경쟁에 기반한 경제자유화가 보수의 가치라는 점, 법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가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보수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서비스복지중심의 노동 보조형의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에 따른 결과도 승복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과 공동

체는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분리할 수 없고 공동체자유주의는 분리불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소득이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 안보와 국방,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보수가 국방과 안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는 한선재단 또는 재단식구들만의 행사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기간 중에 여야(與野) 일부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관련기관의 정책전문가와 언론의 참여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으로 이념지형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한 한선재단의 외침은 거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수의 이념만 가지고 기울어진 이념지형의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그 대안을 찾아내어야만 한다. 그 대안은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행동규범인 공정한 경쟁, 안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보수라는 허명(虛名)을 전면에서 내세우지 않는 공동체자유주의가 적격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창의를 우선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도 소중히 하는 것이 지향 가치이다. 여기서 자유주의와 공동체는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자유주의는 분리불가능하며,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느 특정집단의 정치이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는 보수의 이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정치철학이고 사상이다. 이제 보수진영은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보수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공동체자유주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합,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원천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연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소중한 시대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한선재단은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념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덕목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안민학(安民學)에도 주력해야 할 과제로 떠안았다. 올바른 국정철학과 덕목을 가진 지도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